

제 목	<b>1회 - 나의 이름은 신성혁 1부</b>
방송일시	<b>2017. 05. 08 (월) 밤 11:10</b>

### ■ 40년 만에 나타난 엄마!

40년 동안 살아온 미국에서 추방을 앞둔 입양인, 아담 크랩서. 그의 기구한 사연이 2015년 11월 <MBC 스페셜>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대받고 버림받고, 추방이라는 벼랑 끝에서도 항상 그리웠던 어머니, 아담이 그토록 찾았던 어머니였다. 제작진은 어머니를 찾아 영주로 향했다.

40년 전, 남편은 집을 나가 버렸고 완전히 마비된 한쪽 다리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더 이상 아이들을 굽길 수 없어 잘 살라고 보냈는데.. 그간 아들에게 있었던 참담한 일들을 제작진에게 전해 들은 어머니는 한없이 목 놓아 울었다. 어머니를 찾게 되고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어 돌아온 아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 평생 아시아 중년 여성을 보면  
우리 엄마가 저렇게 생겼을까,  
또는 엄마일까 항상 궁금했어요.”  
- 아담 크랩서 인터뷰 中

### ■ 매질과 지하실 감옥, 그리고 파양

누나와 함께 미국으로 입양된 아담 크랩서, 믿었던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도 없었다. 양부모의 학대는 끔찍했다. 숟가락이나 벨트로 맞은 날에는 집안의 큰 지하실에 갇혔다. 결국 첫 양부모로부터 파양을 당하고 크랩서 부부에게 입양됐지만 그를 기다린 건 더욱 가혹한 학대였다. 그들은 많게는 13명의 아이들을 키우기도 했다. 정부 보조금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그저 돈벌이의 수단이었다. 벨트로 때리고 못 박는 기계를 얼굴을 향해 쏘며 아이들의 공포를 즐겼다. 냉장고에는 늘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 ■ 입양될 때 가져온 물건을 찾다 전과자로..

이웃집의 신고로 크랩서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아담은 16살에 집에서 쫓겨났다. 거리가 그의 집이 되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치즈 버거를 먹으며 허기를 달랠 때도 있었다. 2년간의 고된 생활 속에서도 아담은 크랩서 가에 두고 온 물건을 잊을 수가 없었다. 바로 입양될 때에 한국에서 가져온 고무신과 강아지 인형, 성경책이었다. 어느 날,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몰래 크랩서 가에 들어갔던 아담은 중범죄인 '주택 침입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 자그마치 25개월이란 시간이었다.

## ■ 전과자에서 다시 추방자로

하지만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았다. 온갖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다. 식당, 건축일, 조경일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다. 교도소에서 배운 기술로 이발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뜻뜻하게 살아보고 싶었다. 합법적으로 입양되어 왔지만 시민권이 없었던 그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18세 이전에 양부모가 시민권을 취득시켜줘야 했지만, 학대를 일삼았던 양부모들은 관심이 없었다. 결국 영주권을 신청했던 아담은 이전의 범죄 전력 때문에 추방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 ■ 그리운 어머니

잘못된 입양, 억울하게 시작된 옥살이, 그로 인해 한없이 괴여버린 인생. 지지리도 복 없던 그에게 더욱 간절했던 건 원망보다 그리움이었다. 머나먼 한국, 그 곳 어딘가에 살아계실지도 모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한국으로 추방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더욱더 깊어졌다.

“한 번도 뵙지 못했지만 사랑해요. 아직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평생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세요. 엄마. 제가 엄마 자식이라는 것을요.”

- 어머니의 아들. 신성혁.

## ■ 추방,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다!

2016년 10월, 아담은 결국 한국으로 추방 명령을 받았다. 빈손으로 한국에 돌아온 아담. 그는 이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만 할까.



3년의 제작기간! 기구한 운명의 입양아 아담 크랩서.

어느 곳에서도 자리 잡지 못한 이방인의 40년 인생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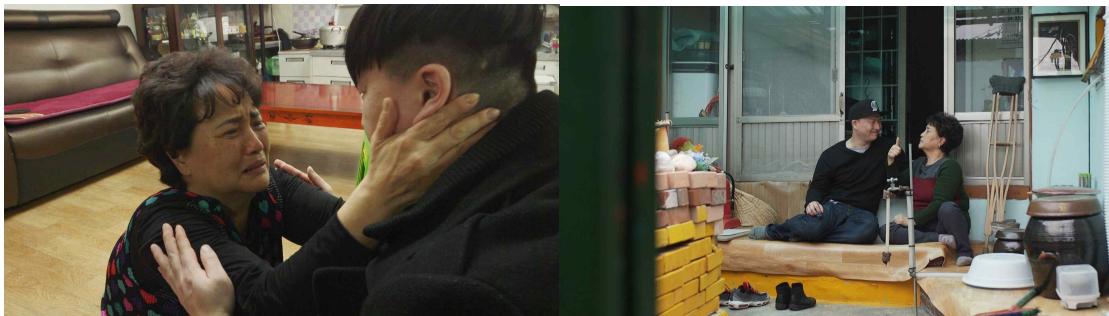
5월 8일 월요일 밤 11시 10분,

<휴먼다큐 사랑>에서 시련 속에 더 단단해진 아담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제 목	2회 - 나의 이름은 신성혁 2부
방송일시	2017. 05. 15 (월) 밤 11:10 ~

### ■ 피할 수 없는 운명, 강제추방

입양인 아담 크랩서. 그의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방송국으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아담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어머니였다. 오랜 재판 끝에 결국 한국으로 추방되어 돌아온 아담. 이번 주 방송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아담이 한국으로 추방된 이후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MBC '휴먼다큐 사랑'은 15일 밤 11시 10분 '나의 이름은 신성혁 2부' 편을 방송한다.



### ■ 40년 만에 만난 어머니

2016년 10월, 기나긴 재판 끝에 아담에게 한국으로의 추방 명령이 떨어진다. 한국에 도착한 아담이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머니의 집. 40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와 아들은 목 놓아 울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해해요, 슬퍼하지 마세요.”

### ■ 나의 이름은 신성혁, 그리고 또 다른 삶의 시작

엄마를 만난 기쁨도 잠시, 이제는 입양 가기 전에 어머니가 지어줬던 이름인 '신성혁'으로 살아야 한다.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도 발급받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해야 한다. 모든 게 낯선 한국에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임시 숙소를 전전하며 일자리도 구해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 점점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 시작될 아담, 신성혁의 새로운 인생! 다시 만난 母子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5월 15일 월요일 밤 11시 10분, <휴먼다큐 사랑>에서 아담의 한국 정착기가 공개된다.

제 목	3회 - 두 엄마 이야기
방송일시	2017. 05. 22 (월) 밤 11:10 ~

### ■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딸, 3년의 기다림

2014년 4월 16일.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세월호와 함께 304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7개월간의 실종자 수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홉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2학년 허다윤, 조은화 학생. 두 엄마는 아이들이 떠난 통한의 바다를 마주한 채, 딸을 기다리며 그 날 이후 세 번째 잔인한 봄을 맞이하고 있다. 그 3년의 기다림을 카메라에 담았다.



### ■ 슬픔과 기다림의 항구, 팽목항의 두 엄마

가라앉은 세월호로부터 가장 가까운 항구인 진도 팽목항. 은화와 다윤이네 가족은 사고가 있던 날 이곳으로 내려와 3년 넘게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 많고 소녀 같은 다윤 엄마 옆엔 언제나 씩씩한 은화 엄마가 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과 발길은 줄어들었지만 두 엄마는 여전히 차가운 세상에 맞서 딸을 찾고 있다. 나란히 불어있는  $12m^2$  임시 컨테이너에 살고 있는 두 엄마는 서로의 슬픔을 온전히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이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상처투성이 두 엄마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 ■ 무조건 엄마 편이었던 딸, 다윤이와 은화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애교 많은 막내딸 다윤이. 형편 때문에 점점 학교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가고 학원을 끊어도 불평 없이 늘 밝았다. 수학여행비 33만원이 집에 부담될까 가지 않으려던 다윤이를 엄마는 다독여 보냈고, 그렇게 떠난 아이는 돌아오지 못했다.

아픈 오빠와 함께 크느라 일찍 철이 든 은화. 전교 1등으로 공부도 잘했고 한 번도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다. 샤워할 때조차 엄마를 옆에 세워 두고 수다를 떨 정도로 친구 같았던 모녀 사이. '엄마 껌딱지'였던 은화를 찾기 위해 엄마는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냥 무조건 엄마 편.

나랑 평생 갈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진 거 같아서 용서가 안돼요.

그래서 내 딸 꼭 찾아야 돼요.”

- 은화 엄마 인터뷰 中

## ■ 두 엄마의 외로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2014년 11월, 7개월 끝에 수중 수색이 중단됐다. 하지만 인양 소식은 해를 넘기도 를 들리지 않고...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갔다.

두 엄마는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서, 뜨거운 뇌약볕 아래에서 두 엄마는 외치고 또 외쳤다. ‘아직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다’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갔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 ■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바닷물을 다 퍼서라도 찾고 싶었다. 기다림은 끝을 몰랐다. 작년 여름 예정이었던 인양이 여섯 차례나 지연됐다. 그리고 올봄, 간절한 엄마들의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그토록 기다렸던 인양 시도 소식이 들려왔다. 두 엄마는 가까운 해역으로 나가 배 안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보며 뜯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2017년 3월 23일, 드디어 3년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그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주저앉아 오열한 두 엄마는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에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나도 보고 싶지만 우리 딸도 엄마 보고 싶어 할 거거든.  
오랫동안 찾아주지 못해 미안하다고..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 다윤 엄마 인터뷰 中

## ■ “다윤아, 은화야 이제 엄마랑 집에 가자”

<두 엄마 이야기>에서는 생생한 그날의 기억, 가족과 함께 보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아직도 못다 한 사랑을 담았다.

열두 번의 계절을 지나 침몰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인양됐다. 세월호는 마지막 항해를 끝내고 목포신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또 긴 기다림이 시작됐다. 물으로 올라온 세월호를 바로 눈앞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두 엄마. 긴 겨울이 끝나고 그리운 딸을 만나는 봄은 과연 올 수 있을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딸을 찾기 위해 세상에 맞선 두 엄마 이야기가  
5월 22일 월요일 저녁 11시 10분, <휴먼다큐 사랑>을 통해 공개된다.

제 목	4회 - 성준이와 산소통
방송일시	2017. 05. 29 (월) 밤 11:10 ~

## ■ 성준이와 산소통

14살,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한참 뛰어놀 나이지만 성준이는 그렇지 못하다. 성준이는 산소통 없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다.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를 하루 종일 코에 꽂은 채로 집안에서 생활한다. 호스의 길이만큼이 성준이가 생활할 수 있는 반경. 산소통이 연결된 호스의 끝에 성준이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을 만났다. 성준이네 가족과 만난 지 1년여, MBC '휴먼 다큐 사랑'은 29일 밤 11시 10분 '성준이와 산소통' 편을 방송한다.



## ■ 원인도, 치료방법도 알 수 없는 질병

돌이 갓 지난 성준이는 감기와 구토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다. 심장이 멈춘 그날, 성준이는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살아났지만 그 때부터 엄마는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었다. 중환자실 복도에서 먹고자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엄마의 기도가 간절했던 걸까. 11개월간의 병원 생활 끝에 성준이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성준이는 그 때부터 산소통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 ■ 내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엄마는 뉴스를 보고서야 10년 넘게 성준이를 아프게 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깨끗한 공기를 주고 싶은 마음에 산 가습기 살균제였는데... 내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아프게 했다니.. 엄마는 한동안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기업과 정부 모두 책임 지려하지 않는 모습에 분노했다. 엄마는 성준이를 데리고 거리로 뛰쳐나갔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 사건의 참혹함을 알리고 싶었다.

## ■ 제발 이대로 살아다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면 울리는 알람 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일어나 성준이의 콧줄을 제대로 끼워줘야 한다. 하룻밤에도 몇 번씩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설치며 10년이 넘게 살아온 엄마. 폐기능이 30%로 떨어져 폐 이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요즘 부쩍 근심이 늘었다. 사춘기가 되어 코밑이 거뭇거뭇 해지고 슬쩍 반항기가 늘어가는 아들이 흐뭇하기만 한 엄마. 성준이 숨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았던 시간들이 더 길어져도 괜찮다. 지금처럼만 살아준다면.

“성준이가 아팠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으니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 성준이 엄마 인터뷰 中



아이의 잘못도, 엄마의 잘못도 아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사랑이 시작된다.  
5월 29일 월요일 밤 11시 10분 방송.